반세기 축적한 '제주체'… 제주 건축의 흐름

원로 김석윤 건축전 이달 6일부터 현대미술관서 진행
건축가·사진가 40여명도… "시민에 공공 의미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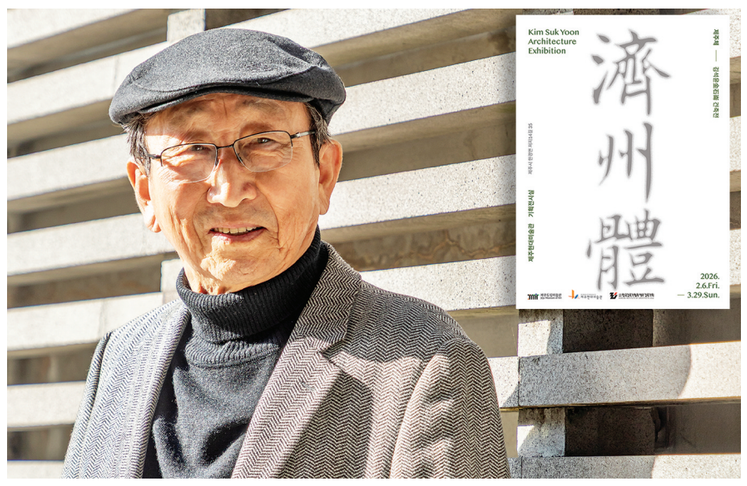
제주 건축이 지켜온 태도와 가치는 무엇일까. 50여 년간 제주 건축문화를 축적해 온 원로 건축가 김석윤을 통해 이를 들여다본다.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과 (사)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가 공동으로 여는 '제주체(濟州體)-김석윤 건축전'이다.

산수를 넘긴 원로 건축가인 그가 고향 제주에서 해온 반세기의 작업은 지역 건축가들에겐 제주 건축의 흐름으로 다가온다. 관광 개발이 불던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가 겪은 사회변화 속에서 그는 "건축은 땅의 논리에 따른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요구와 지역의 조건을 함께 읽어내며 제주의 풍토 안에서 건축 언어를 구축해 온 인물이다. 제주의 풍토와 역사, 삶의 시간이 축적된 건축의 고유한 체질을 의미하는 전시 주제인 '제주체'는 그의 작업에서 두드러진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제주현대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건축세계를 조명하면서 제주 건축이 형성돼 온 흐름을 되짚고 제주 현대건축의 의미를 살펴본다. 또 사회 속에서 건축이 수행해 온 공공적 역할을 전하는 건축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그가 설계한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려 의미를 더한다. 또 한 건축가의 회고전 형식의 건축전이 열리는 것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인데, 제주 건축가를 중심으로 지역 미술관과 지역 건축가들이 처음으로 건축전을 직접 기획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던진다.

전시는 '프롤로그: 제주체', '배경: 건축 감각의 바탕', '만남: 시대, 건축과의 만남', '실천: 사유에서 공간으로', '축적: 다시 장면들', '공명: 오래된 미래'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건축가 김석윤(윤준환 작가 제공)과 '제주체-김석윤 건축전' 포스터.

이번 전시에는 윤준환·박영채·진효숙·김재경 등 14명의 건축사진 작가가 함께한다. 이들은 김석윤 건축가가 만든 공간을 현재의 시점에서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읽어낸다. 또 제주를 비롯해 전국 건축가 30여 명도 참여한다. 건축가의 제자, 사무소를 거쳐간 건축가들, 그의 작업에 영향을 받은 후배 건축가들이다. '재료', '지붕', '지형', '은유와 상징' 등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각 건축사가 그의 공공건축물을 재해석해 텍스트와 모형으로 표현한다.

이밖에 제주에서 활동하는 무용가, 영상감독, 건축가가 협업해 건축 속에서 펼쳐지는 움직임과 리듬을 통해 '제주체'를 감각적으로 펼쳐낸 영상 작품도 선보인다. 큐레이션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김지희가 맡는다. 전시 개막식은 이달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발레 '돈키호테'. 서귀포예당 제공

발레 '돈키호테'에 국립극단 '스카팽'까지

서귀포예당 중앙공모 선정

서귀포예술의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년 중앙공모사업'에 5개 작품이 선정됐다.

3일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국립극단 등 총 3개 기관이 주관한 공모 사업에 5개 작품이 선정돼 국비 2억8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연극,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 시민과 전국체전 방문객을 만난다.

우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을 통해 연극 '그때도 오늘'(7월 24~25일), 연극 '여보 나도 할말 있어'(10월 9일), 대형 공연인 발레 '돈키호테'(10월 9일) 등을 선보인다.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실존 음악가 베를리오즈, 슈만, 파가니니의 삶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 창작 뮤지컬 '환상교향곡'이 선정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체전 기간 문화공연으로 진행된다.

국립극단의 '지역공연 사업'으로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의 명작 '스카팽의 간계'를 원작으로 한 코미디 연극 '스카팽'이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관객들을 만난다.

박소정기자

설 맞이 전통문화 프로그램 이달 12~13일 제주교육박물관

설 명절을 맞아 제주교육박물관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복조리를 엮으며 새해 복을 기원하는 '복을 담고 마음을 엮는 복조리' ▷절벤·솔벤·기름떡을 만들어 나눠먹는 '설의 온기, 멩질 떡반' ▷새해 소망과 다짐을 적어보는 '새해, 새마음' 등이 있다.

전시실 곳곳 '말'과 관련된 전시물과 체험물을 찾아보는 전시 연계 미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제주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진행된다.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486>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으덜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시인이 씬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훈 디서 '은발의 청춘'에 대훈 시 이왁을 ᄒᆞ여보켜."

- 은발의 청춘 -

꼿이 지믄 메기독닥인 중 알앗주
단풍썹 지곡 멘들락ᄒᆞᆫ 낭 뒈민
산강을 떠나는 철생이 뒐 중 알앗주
나 지픈 속솔에 푸릇푸릇ᄒᆞᆫ 새썹덜
향긋ᄒᆞᆫ 꼿눈 ᄀᆞ득ᄀᆞ득 쿰어그네
ᄀᆞ만ᄀᆞ만 오고련 신 중 몰랏주
강 넘을 ᄀᆞ리 뒈신가 ᄒᆞ엿주
나 몸 실른 강물 늘짝늘짝 흘르곡
바당은 ᄒᆞᆫ참 먼 질인 걸 몰랏주
시상도 웃곡 이녁도 그적 웃인
웨롭곡 휑ᄒᆞᆫ 질에 들어살 중 알앗주
미래는 아무 때곡 남아 신 것
나 소곱에 이녁 봄ᄇᆞ름 솔랑솔랑
무데기로 활활 피연 잇인 걸
꼿 지고 단풍진 날 솔째기 알앗주

<계속>

<자료:양전형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제주어 풀이

*꼿 ; 꽃. *지믄 ; 지면. *메기독닥 ; 없는 것. 끝.
*인 중 알앗주 ; 인 줄 알았다. *단풍썹 ; 단풍잎. *지곡 ; 지고.
*멘들락ᄒᆞᆫ ; 벌거벗은. *낭 뒈민 ; 나무 되면. *철생이 ; 철새.
*뒐 중 ; 될 줄. *지픈 속솔에 ; 깊은 속살에. *새썹덜 ; 새싹들.
*ᄀᆞ득ᄀᆞ득 ; 가득가득. *쿰어그네 ; 품어서 *ᄀᆞ만ᄀᆞ만 ; 가만가만.
*오고련 신 중 ; 꾸부려서 있는 줄. *ᄀᆞ리 뒈신가 ; 그 쯤 되었는가.
*늘짝늘짝 흘르곡 ; 느릿하게 흐르고. *바당은 ; 바다는
*ᄒᆞᆫ참 먼 질인 걸 ; 한참 먼 길인 것을. *시상도 웃곡 ; 세상도 없고.
*그적 웃인 ; 기척 없는 *봄ᄇᆞ름 솔랑솔랑 ; 봄바람 살랑살랑.
*피연 잇인 걸 ; 피어 있는 것을. *솔째기 알앗주 ; 살짜기 알았지.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한 성 율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무국장 오남선 외 직원일동

경 CONGRATULATIONS

한경면발전협의회 조성식
제8대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축 CONGRATULATIONS

제7대 회장 조은호

2026년 한경면발전협의회
회원 명단

제8대 회장 조성식

운영위원	회장 조성식 명예회장 양창철 직전회장 조은호 수석부회장 김재남 부회장 김계남, 이길영, 류영철, 강은철, 박봉희, 강앵순 감사 김왕동, 김성미 당연직운영위원 조창숙, 좌용신, 고영수, 강형권 사무국장 좌부은 재무 김숙희
자문위원	좌남수, 김승준, 김창식, 김군진, 고영찬, 양기호, 성용은, 양원보, 김명석, 고명선, 김영일
고 문	최수행, 김창소, 고경화, 고성권
자매결연	양남면발전협의회 회장 김원도
회 원	강규남, 강동훈, 강창식, 강희선, 고광철, 고기생, 고대림, 고덕양, 고영국, 고재성, 고호준, 김군철, 김근화, 김명철, 김상문, 김성도, 김성은, 김성후, 김승지, 김애자, 김영택, 김용수, 김정오, 김종수, 김행환, 김현수, 문경민, 문용철, 변덕삼, 변재성, 서금만, 송순홍, 송호철, 신경식, 양태인, 오군식, 이경봉, 이덕자, 이선형, 이용주, 이정훈, 이충훈, 이형철, 임안순, 장임학, 정은숙, 정혜윤, 조상만, 조상철, 조성완, 조영기, 좌승호, 진범경, 진영택, 진창효, 현대성, 현재협, 홍동운